

물류관리사 10,000명 돌파 예상!!

- 정부와 기업의 관심으로 지난해 보다 합격률 상승할 듯 -
-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가속화 -



제1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10월 26일을 앞 두고 합격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합격자는 8,355명. 이번 시험에서 1,645명 이상이 합격하면, 물류관리사가 10,000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15,863명이 접수하여, 지난 8월 19일 8,042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5대도시 17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시험부터는 국제물류론 과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1교시에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등 3과목, 2교시에는 보관하역론과 물류관련법규 등 2과목으로 5과목 총 200문항이 출제되었다.

시험문제 난이도는 국제물류론이 새롭게 추가되어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험생들의 반응은 지난해 보다 쉬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활성화되고 기업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회사임직원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권장하고, 나아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대비에 대한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물류교육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제11회 물류관리사 합격자들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자격증 교부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이며, 11월 3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에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합격증을 당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교육 장소는 합격자 발표당일에 공고한다. 단, 이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1월 5일 이후부터 우편이나 협회로 직접 방문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는 국가정부 시책에 따라 47개 국가공인 자격증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에 따른 것이며, 제12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물류관리사 합격자 현황】

연 도	합 계
1회	1,109
2회	439
3회	1,827
4회	269
5회	618
6회	560
7회	615
8회	454
9회	1,243
10회	1,221
합계	8,355

물관사 시험에 노인시험감독관 활용, 노인인력활용의 모범사례



〈노인인력인 부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물류협회는 지난 8월 19일(일) 서울 등 5대 도시 17개 고사장에서 시행된 제11회 물류관리사자격 시험에 노인시험감독관 446명을 부시험 감독관으로 위촉,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보였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물류협회가 시행하는 이번 시험에는 정감독관 520명, 부감독관 520명 등 총 1,040명의 시험감독관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부감독관 총 520명 중 446명이 노인인력으로 활용되었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운영이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감독관을 구성한데 반해, 이번 시험에서는 부감독관의 86%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시험감독관으로 위촉함으로써 노인시험감독관사업이 시행된 이래 단일 시험으로는 최대인원의 노인이 활용됐다.

노인시험감독관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0세이상의 건강한 노인 중 시험감독관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이나 교사를 선발하여 각종 자격시험 및 채용 시험에 감독관, 복도요원 등으로 파견하여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행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만으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재원조달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출신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민간분야의 노인인력 활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고자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자격시험에 노인시험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었다.

노인시험감독관은 시험당일 정감독관과 협력하여 시험장 입실 안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부정행위 등을 감독하여 응시생들이 정숙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물류협회는 이번 제1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노인시험감독관에 대한 응시생과 정감독관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시험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노인시험감독관 활용을 다른 시험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노인인력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의 택배 배송업무 등과 같은 물류관련 업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택배기업과 협의중에 있다. **물류**